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산업생산지수는 100.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5.1% 증가, 경공업 부문 0.5% 감소
 - 서울의 1월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누중 단계로 해석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9,769억으로 전년동월대비 25.5% 증가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월의 경우 신년으로 인한 판매증가로 판단됨
-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로 전월대비 0.9%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1.7%, 서비스는 0.6%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4%,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3% 각각 상승

고용

- 서울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한 8,407천명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서울의 1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취업자는 4,9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0천명(2.7%)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1천명(1.5%), 여자는 89천명(4.4%)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전국대비(-1.8%) 1.9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4%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
- 서울의 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고용률 상승
 - 서울의 1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남자는 1.3%p 하락한 5.4%, 여자는 1.1%p 하락한 4.0%로 전체적으로 4.8% 감소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8%p, 여자는 1.7%p 상승
 - 서울의 실업률(4.8%)은 전국 실업률(3.8%)과 1.0%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8.4%)과 전국(58.4%)이 1.6%p 차이를 나타냄

부동산

- **서울의 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51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4%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조 65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9%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9.5%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 및 신규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53.9% 감소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 두 달 연속 상승세 지속**
 - 서울(0.2%)의 주택매매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도권(0.1%)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
 - 강북지역(0.1%)은 10개월 만에 상승전환된 가운데 광진구, 종로구 등에서 주로 상승
 - 강남지역(0.2%)은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서울(1.0%)의 주택전세가격은 겨울방학 동안 우수학군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0.9%)은 성동구, 광진구가 전월대비 상승폭 크게 확대
 - 강남지역(1.1%)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금융

- **서울지역 12월 기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12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21조 5,25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7조 4,689억원(-1.41%) 감소
-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 3개월 연속 증가**
 - 서울의 1월 신설법인수는 2,000개로 전월대비로는 3.2%(62개) 증가
- **서울의 1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1월 부도업체 수는 전월대비 38.0%(26개) 감소
- **서울의 1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수출은 38.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1%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합성수지 등의 순
 - 서울의 12월 수입은 9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3% 증가. 수입 1순위는 석유 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무선통신기기 등의 순

| 생 · 산 |

서울의 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산업생산지수는 104.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타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증가, 경공업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하며 4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등

■ 전국의 1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7%, 전월대비로는 4.6% 각각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4.9%), 컴퓨터(-11.4%)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4.4%), 자동차(23.1%) 등의 호조로 13.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19.0%), 숙박·음식점(-0.7%)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9.4%), 도매소매(8.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8.0%), 금융보험(7.8%) 등이 증가하여 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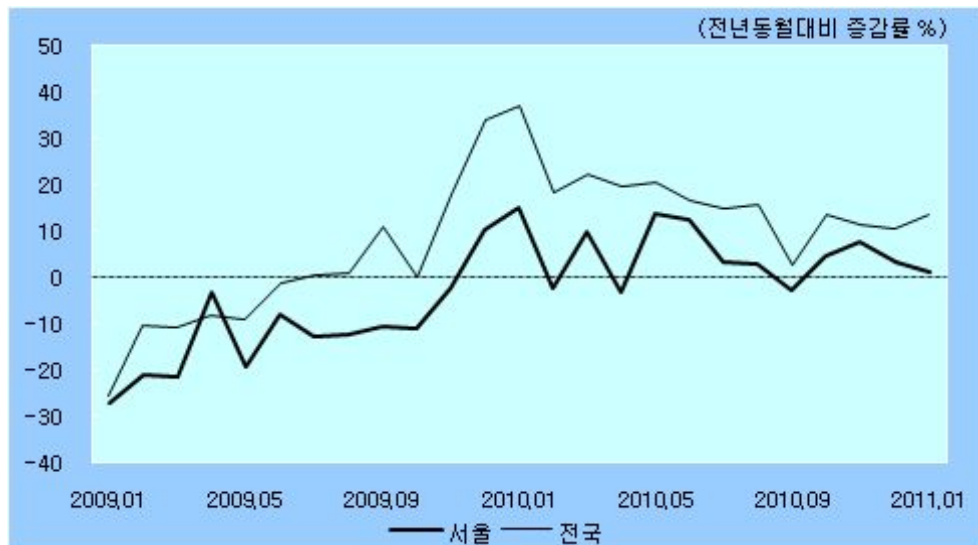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9월	10월	11월p	12월p	1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14.9	-2.6	4.6	7.7	3.3	1.0
	중공업	13.2	3.2	5.8	1.4	1.6	5.1
	경공업	15.6	-4.9	4.0	10.8	4.3	-0.5
	전국	37.0	2.9	13.4	11.2	10.6	13.7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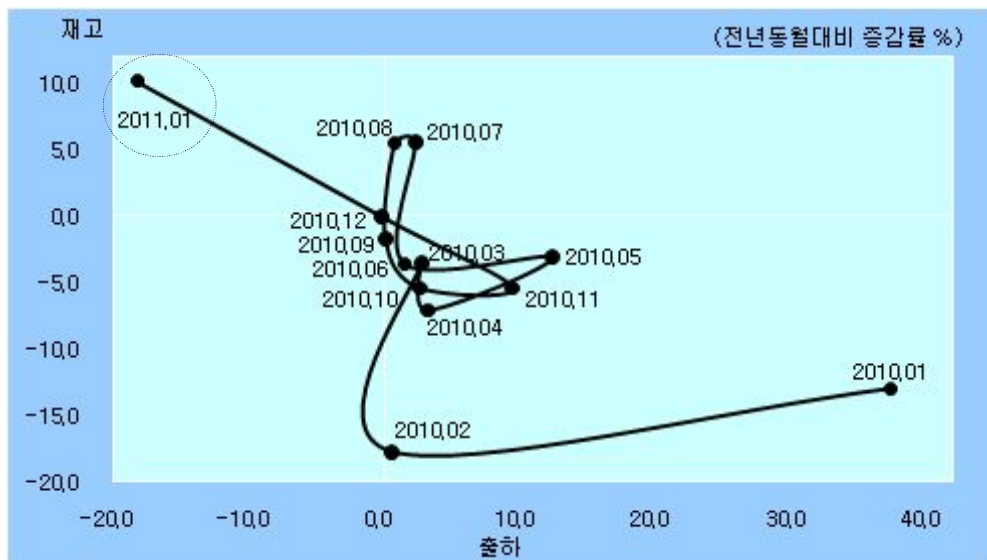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1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1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의 1월 재고지수는 159.3(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재고누중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중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증가, 부문별로는 중공업 증가, 경공업 감소
 - 서울의 1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63.1%로 전월대비 16.8%p 증가하였고, 전국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89.8%로 전월대비 7.6%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56.5%p 증가한 173.1%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7.0%p 감소한 154.0%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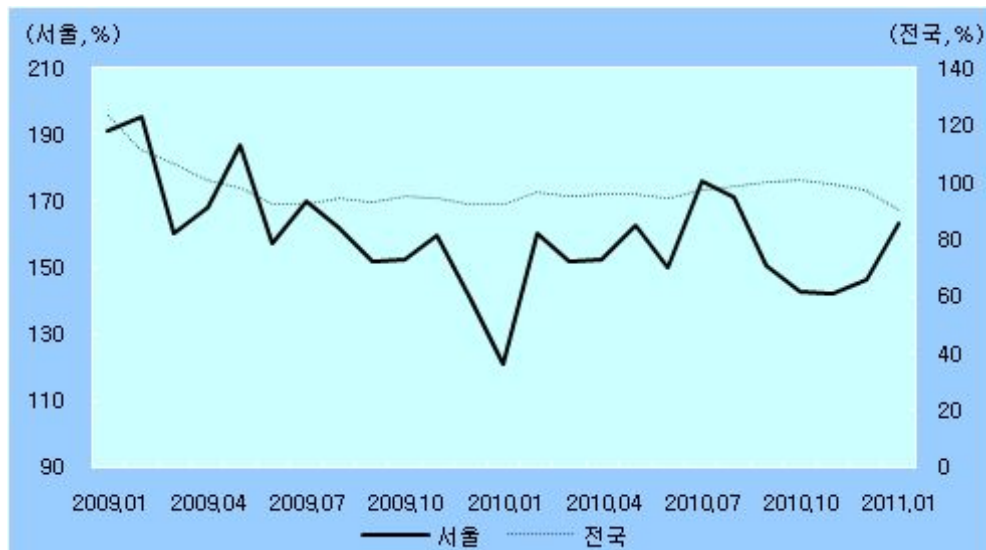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재고율	서울	121.1	150.8	142.9	142.1	146.2	163.1	16.8
	중공업	193.2	158.6	160.3	135.4	116.6	173.1	56.5
	경공업	99.6	143.1	132.2	141.7	161.0	154.0	-7.0
	전국	92.2	99.9	100.5	99.1	97.4	89.8	-7.6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9,769억으로 전년동월대비 25.5%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23.2% 증가, 대형마트 29.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월의 경우 신년으로 인한 판매증가로 판단됨

■ 전국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9,90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26.9%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0%, 대형마트는 2.6% 각각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4.1%,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11.9%,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9.1%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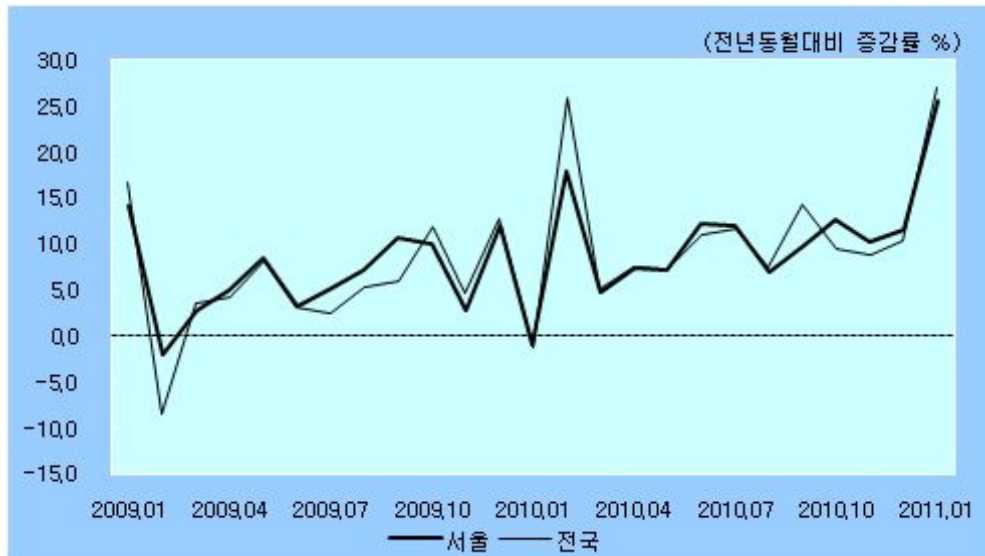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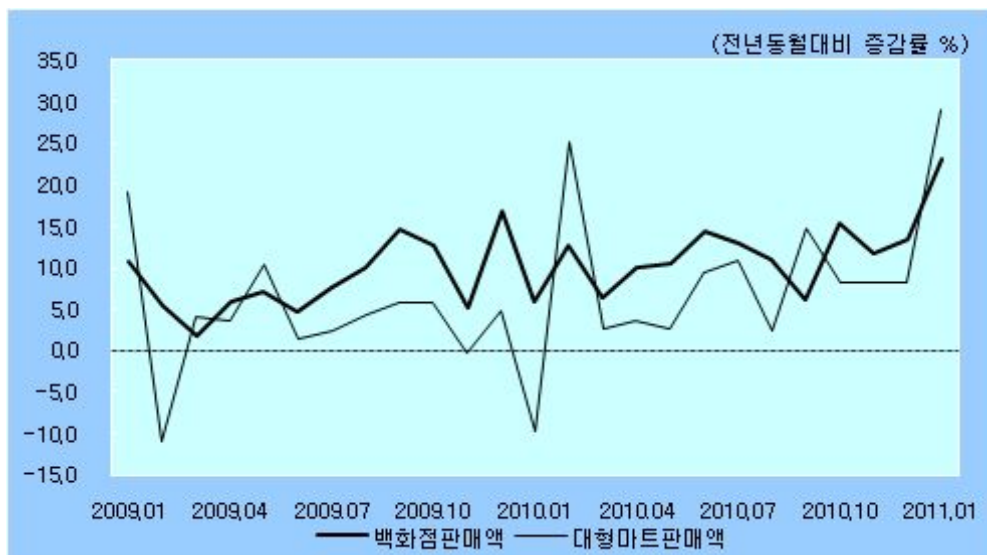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판매액	서울	1575.3 (-0.9)	1739.8 (9.8)	1786.2 (12.6)	1759.9 (10.3)	1905.0 (11.5)	1976.9 (25.5)
	백화점	950.5 (6.0)	964.2 (6.1)	1130.6 (15.3)	1104.6 (11.7)	1198.0 (13.4)	1171.2 (23.2)
	대형마트 (할인점)	624.7 (-9.8)	775.6 (14.8)	655.5 (8.3)	655.2 (8.1)	707.0 (8.3)	805.7 (29.0)
	전국	4720.9 (-1.3)	5305.0 (14.4)	5123.2 (9.4)	5075.3 (8.9)	5517.9 (10.3)	5990.2 (26.9)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전도시:118.9, 2005년=100)로 전월대비 0.9%(전도시:0.9%), 전년동월대비 3.9%(전도시:4.1%) 각각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은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 6.4% 각각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

■ 서울의 1월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4%(전도시:1.3%), 전년동월대비 4.1%(전도시:4.7%)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3% (전도시:2.6%), 전년동월대비 27.2%(전도시:30.2%) 각각 상승

■ 전국 1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9(2005년=100)로 전월대비 0.9% 상승하여 전월의 0.6% 상승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 전년동월대비 4.7%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6% 상승, 전년동월대비 30.2%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부산, 경북 등 8개 시도는 전도시 평균(0.9%)보다 높게 1.0~1.4%씩 상승하였고, 서울, 강원 등 8개 시도는 0.8~0.9%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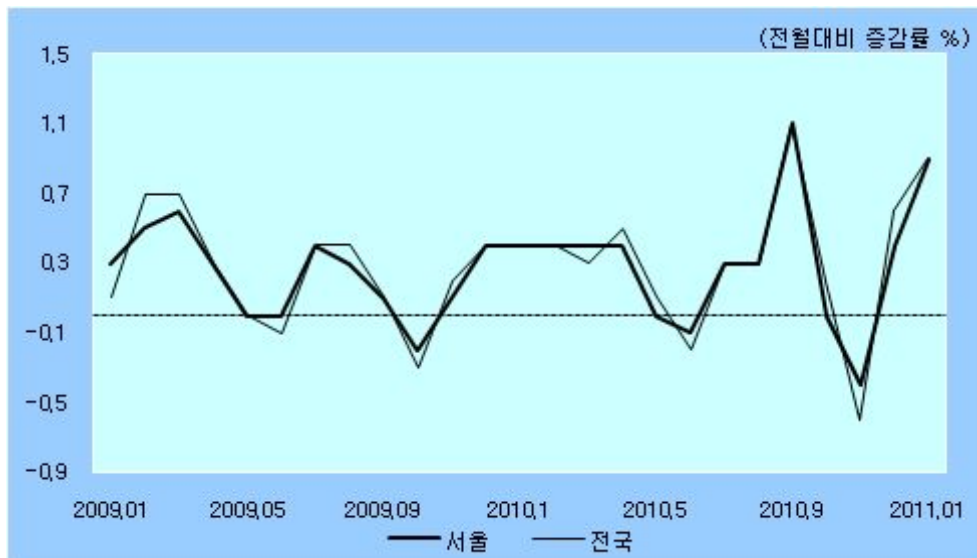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비	서울		0.4 (2.7)	0.3 (2.5)	1.1 (3.5)	0.0 (3.7)	-0.4 (3.2)	0.4 (3.3)	0.9 (3.9)
	상품 성질별	상품	0.6 (4.2)	0.7 (3.5)	2.6 (6.0)	-0.3 (6.2)	-1.2 (4.8)	1.1 (5.3)	1.7 (6.4)
		서비스	0.3 (2.0)	0.1 (1.9)	0.4 (2.2)	0.2 (2.4)	-0.1 (2.2)	0.1 (2.1)	0.6 (2.5)
	생활물가		0.6 (3.4)	0.3 (2.4)	1.7 (3.9)	-0.2 (4.1)	-0.8 (3.2)	0.4 (3.2)	1.4 (4.1)
	신선식품		6.5 (4.5)	5.5 (16.6)	22.1 (44.8)	-2.7 (44.9)	-10.1 (34.6)	1.3 (29.9)	4.3 (27.2)
	전국		0.4 (3.1)	0.3 (2.6)	1.1 (3.6)	0.2 (4.1)	-0.6 (3.3)	0.6 (3.5)	0.9 (4.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서울의 1월 신선식품 마늘 제외한 모든 품목 가격상승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0.7%,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7.2% 각각 상승
- 청과류 중 마늘 29.2% 감소, 무(43.8%), 배추(28.0%), 양파(8.2%), 파(2.8%) 순으로 각각 상승하였음
- 수산물의 경우 멸치 7.2%, 고등어는 8.2% 상승, 양곡류인 쌀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률
양곡	쌀	42,143	41,968	42,435	39,109	39,046	41,609	6.2
수산	멸치	2,463	2,582	2,543	2,677	2,428	2,615	7.2
	고등어	2,500	2,500	2,714	3,545	3,674	4,000	8.2
채소	배추	4,903	7,816	7,679	3,908	3,404	4,728	28.0
	무	2,646	2,983	4,069	2,849	2,655	4,728	43.8
	파	2,315	4,766	5,927	4,974	4,181	4,302	2.8
	양파	1,592	1,717	1,726	1,910	1,802	1,962	8.2
	마늘	10,713	11,383	12,329	11,121	8,866	6,863	-29.2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 무(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15세이상 인구는 8,4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명(0.6%)이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5,1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4%)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0.7%)이 감소

■ 전국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1월 15세이상인구는 40,8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7천명(1.1%)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4,1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명(0.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35천명으로 22천명(0.2%)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879천명으로 11천명(0.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0.7 (0.1)	3.5 (-1.2)	3.4 (0.0)	3.6 (0.5)	1.9 (-0.3)	2.7 (0.5)	1.4 (-1.2)
	남자	0.7 (0.0)	2.6 (-0.5)	2.4 (-0.4)	2.9 (0.6)	0.9 (-0.4)	1.4 (0.2)	0.1 (-1.2)
	여자	0.8 (0.2)	4.6 (-2.0)	4.6 (0.6)	4.4 (0.3)	3.3 (-0.3)	4.5 (1.0)	3.2 (-1.1)
	전국	1.6 (0.1)	1.3 (-1.6)	1.1 (0.3)	1.4 (0.4)	0.9 (-0.6)	2.0 (-1.2)	0.1 (-1.7)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0.9	61.8	61.8	62.1	61.8	62.1	61.4
	남자	72.5	73.2	73.0	73.4	73.1	73.2	72.3
	여자	49.9	51.0	51.2	51.4	51.2	51.7	51.1
	전국	59.6	61.1	61.2	61.4	61.0	60.1	59.0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취업자는 4,9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0천명(2.7%)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87천명, 여자는 2,1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1천명(1.5%), 여자는 89천명(4.4%)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57.1%), 건설업 39천명(11.7%), 사업개안 공공서비스업 142천명(8.0%), 전가운수통신금융업 30천명(3.8%)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78천명(-5.6%), 제조업 5천명(-0.9%)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전국대비(-1.8%) 1.9%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4%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취업자는 23,19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1천명(1.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6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1천명(1.3%) 증가하였고, 여자는 9,523천명으로 150천명(1.6%)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30대를 제외한 이외 연령층에서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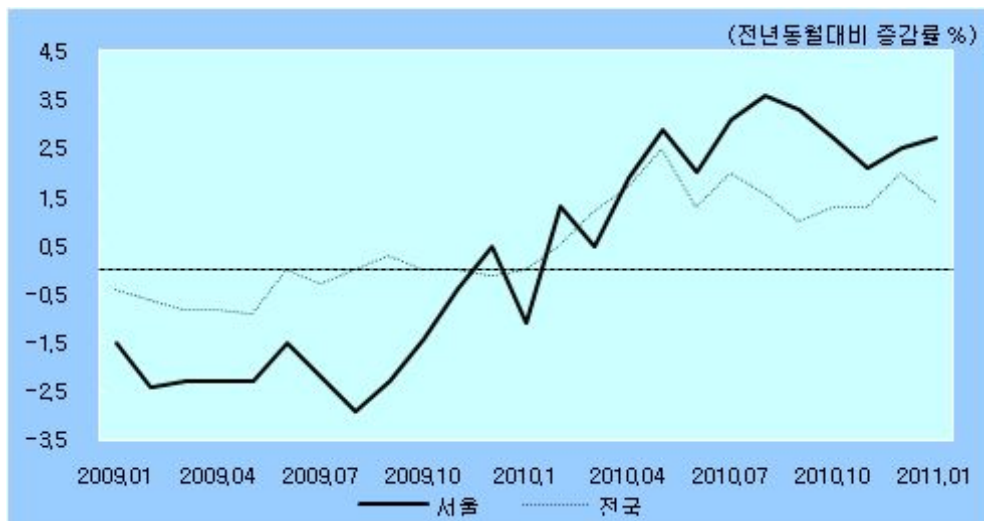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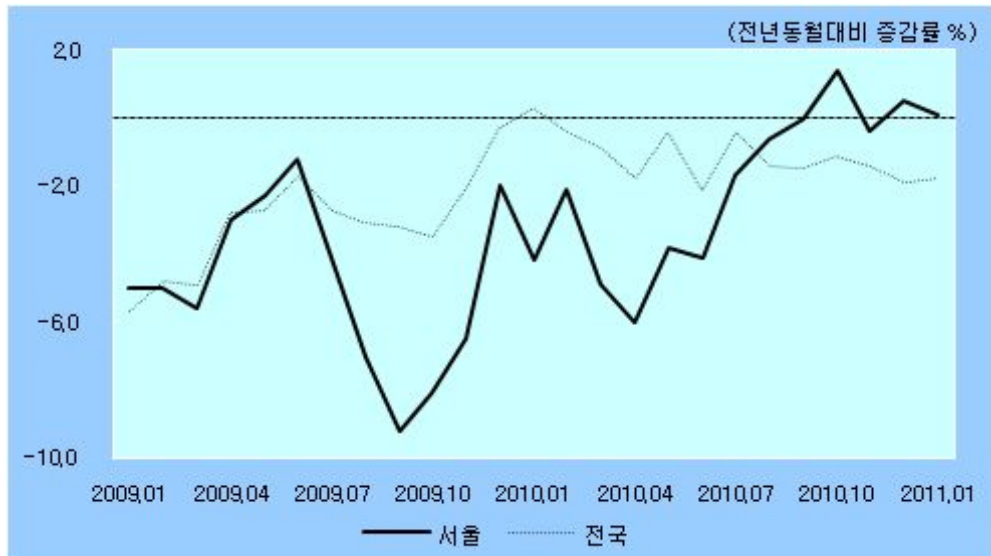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취업자	서울	-1.1 (-1.9)	3.6 (-1.0)	3.3 (0.0)	2.7 (0.3)	2.1 (0.2)	2.5 (0.3)	2.7 (-1.7)
	남자	-0.9 (-2.4)	3.0 (-0.4)	2.6 (-0.4)	1.8 (0.2)	0.4 (-0.2)	1.0 (0.6)	1.5 (-1.9)
	여자	-1.4 (-1.3)	4.5 (-1.8)	4.1 (0.4)	4.0 (0.4)	4.3 (0.7)	4.5 (0.0)	4.4 (-1.4)
	전국	0.0 (-1.6)	1.6 (-1.2)	1.0 (0.2)	1.3 (0.5)	1.3 (-0.3)	2.0 (-1.8)	1.4 (-2.1)
청년층 취업자	서울	-4.2 (-0.7)	-0.6 (-2.9)	0.0 (-2.8)	1.4 (0.6)	-0.4 (-0.2)	0.5 (3.4)	0.1 (-1.2)
	전국	0.3 (1.1)	-1.4 (-4.0)	-1.5 (-2.0)	-1.1 (-0.5)	-1.4 (1.4)	-1.9 (0.1)	-1.8 (1.3)
고령층 취업자	서울	3.8 (-10.1)	8.9 (-2.3)	7.8 (2.7)	3.5 (-0.9)	1.3 (-1.3)	2.5 (-1.0)	10.4 (-3.2)
	전국	-4.5 (-8.0)	1.7 (-1.5)	0.9 (1.1)	0.8 (0.4)	0.6 (-4.4)	5.8 (-9.6)	4.6 (-9.0)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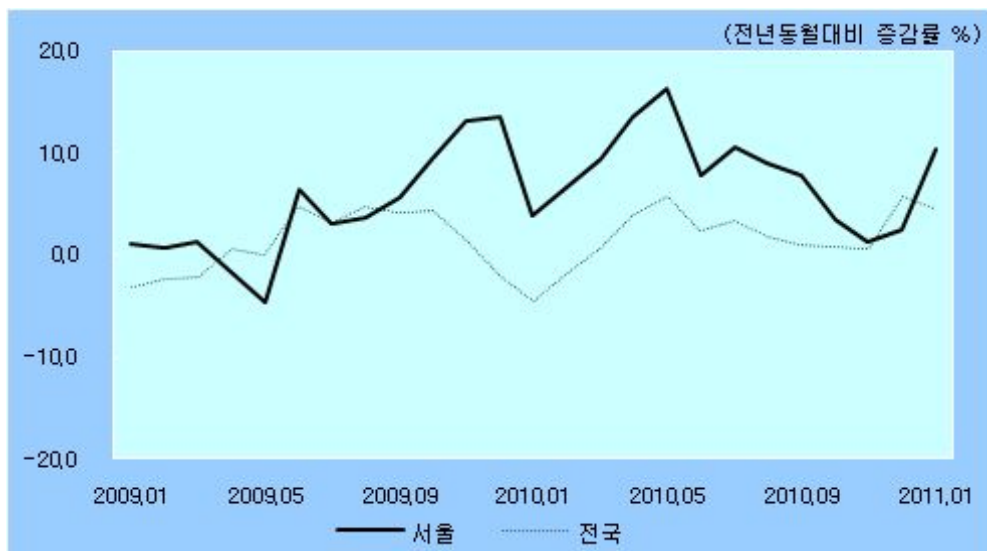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천명(125.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13천명(9.2%), 사무종사자 74천명(8.9%) 전문·기술·행정관리자 6천명(0.4%)이 각각 증가
-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67천명(-5.1%)이 감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174천명이었고, 임금근로자는 3,740천명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5천명(-5.2%)이 감소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3천명(1.5%)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58천명(7.8%), 임시근로자는 10천명(0.9%), 일용근로자는 15천명(3.7%)이 각각 증가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4.1%)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2.7%)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6천명(8.5%)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는 7천명(1.9%)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69천명(6.2%)이 증가하였으나,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57천명(-4.1%)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산업별	제조업	-7.5 (0.1)	9.0 (-0.6)	9.2 (-0.8)	11.6 (3.2)	6.4 (-3.6)	3.1 (-2.1)	-0.9 (-3.7)
	SOC 및 기타서비스업	-0.3 (-2.1)	3.0 (-1.1)	2.6 (0.0)	1.7 (-0.1)	1.5 (0.7)	2.4 (0.7)	3.1 (-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0 (-4.0)	2.2 (-2.8)	3.5 (0.7)	2.1 (-0.3)	3.0 (1.0)	5.3 (0.7)	8.0 (-1.4)
	도소매·음식숙박	3.0 (-0.5)	-0.8 (-0.1)	-2.8 (-0.5)	-3.9 (-1.0)	-4.8 (0.6)	-4.6 (1.1)	-5.6 (-1.6)
	전기·운수·통신·금융	2.8 (1.0)	5.0 (0.2)	3.8 (0.0)	5.6 (2.9)	5.9 (0.8)	4.8 (0.9)	3.8 (0.0)
	건설업	-14.6 (-5.9)	18.0 (2.0)	16.0 (-1.3)	12.5 (-1.8)	8.8 (-1.0)	9.3 (-1.5)	11.7 (-3.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2 (-1.1)	-2.3 (-3.0)	-2.9 (-0.5)	-1.9 (0.8)	-2.3 (-0.2)	-0.1 (1.7)	0.4 (-0.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조종사	-4.9 (-4.7)	15.1 (-1.1)	16.0 (0.7)	11.8 (-0.3)	6.4 (-2.6)	8.0 (-0.3)	9.2 (-3.6)
	서비스·판매종사자	-0.4 (1.2)	-1.2 (0.5)	-1.1 (0.8)	-4.1 (-1.3)	-2.6 (0.9)	-3.1 (0.1)	-5.1 (-0.9)
	사무종사자	-0.1 (-3.6)	3.5 (0.3)	0.8 (-1.7)	6.5 (2.6)	9.3 (4.4)	6.4 (-0.2)	8.9 (-1.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3 (-3.0)	5.5 (-0.6)	4.6 (-0.3)	4.3 (0.6)	3.4 (0.2)	4.3 (0.6)	5.1 (-2.2)
	비임금근로자	2.6 (1.4)	-2.1 (-2.2)	-0.8 (1.0)	-1.9 (-0.8)	-2.0 (0.2)	-3.0 (-0.5)	-4.3 (0.1)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고용률 상승

■ 서울의 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월 실업자는 2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8천명(-19.1%)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9천명, 여자는 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7천명(-18.8%), 21천명(-19.5%)이 감소
-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4%, 여자는 4.0%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3%p, 1.1%p 하락

■ 전국의 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1월 실업자는 9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8천명(-24.5%)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0천명(-22.1%), 여자는 3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명(-28.0%) 감소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 여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월대비 0.1%p 상승

■ 서울 및 전국의 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4%, 여자는 49.1%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8%p, 1.7%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1.6%p 차이
- 전국의 1월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4%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자는 45.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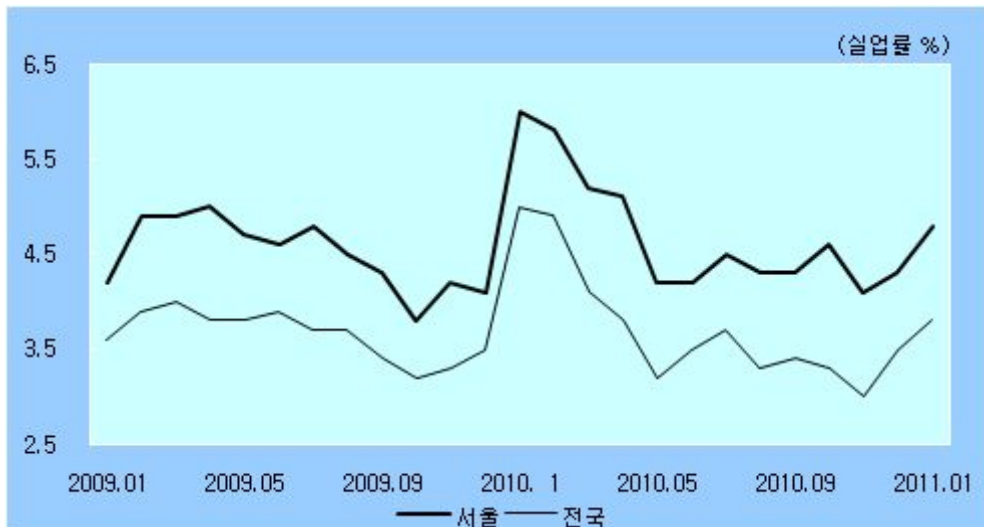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실업률	서울	6.0	4.3	4.3	4.6	4.1	4.3	4.8
	남자	6.7	4.9	4.9	5.3	5.1	4.8	5.4
	여자	5.1	3.4	3.6	3.6	2.7	3.6	4.0
	전국	5.0	3.3	3.4	3.3	3.0	3.5	3.8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청년층 실업률	서울	7.8	8.4	7.8	10.0	8.1	7.7	8.0
	전국	8.0	8.1	7.6	9.5	7.7	7.6	7.1
고령층 실업률	서울	3.2	2.0	1.7	7.2	4.3	3.1	2.7
	전국	1.9	1.6	1.5	5.8	2.1	2.0	1.9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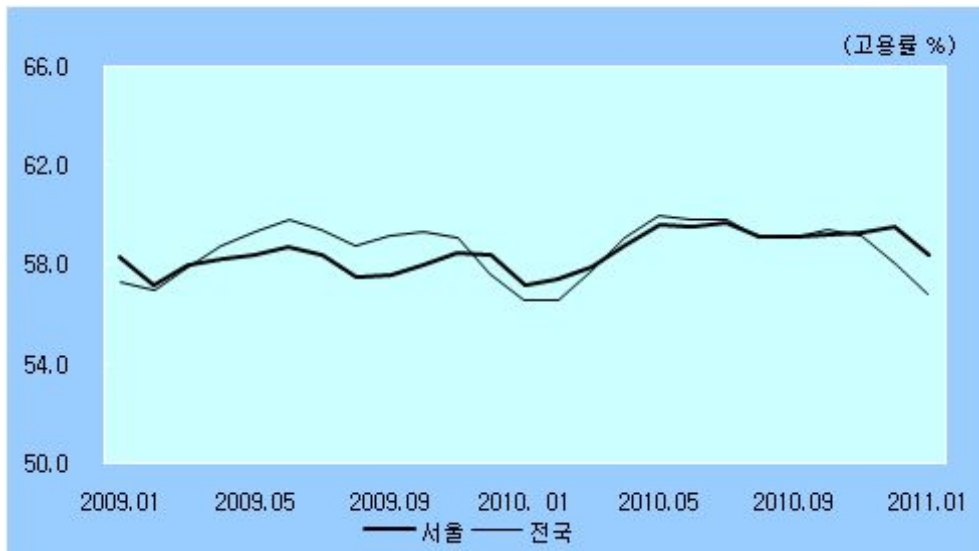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고용률	서울	57.2	59.1	59.1	59.2	59.3	59.5	58.4
	남자	67.6	69.6	69.4	69.5	69.3	69.7	68.4
	여자	47.4	49.2	49.4	49.5	49.9	49.8	49.1
	전국	56.6	59.1	59.1	59.4	59.2	58.0	56.8

		2009년			2010년			
		2/4	3/4	4/4	1/4	2/4	3/4	4/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5.6	43.8	42.8	42.8	44.1	44.0	43.7
	전국	41.1	40.7	40.1	40.1	40.8	40.6	39.9
고령층 고용률	서울	30.3	31.1	32.5	29.4	32.7	32.7	32
	전국	38.3	38.9	36.4	31.4	38.4	38.2	35.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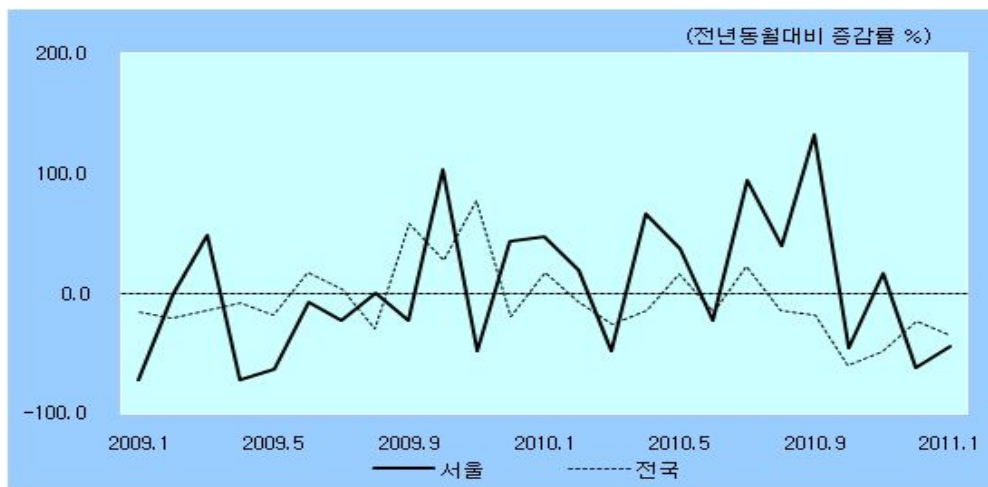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51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4%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조 65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9%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9.5%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재개발 및 신규주택, 학교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53.9% 감소
-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은 40.0%, 토목부문은 78.7% 각각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서울	933	2,101	1,045	1,945	2,020	519	-44.4	-74.3
발주자별	공공	109	185	192	79	607	141	29.5
	민간	778	1,899	853	1,866	1,265	359	-53.9
공종별	건축	828	1,914	898	1,932	1,829	497	-40.0
	토목	105	188	148	13	191	22	-78.7
전국	6,643	7,381	4,274	7,459	14,014	4,658	-33.9	-66.8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 두 달 연속 상승세 지속

■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 5개월 연속 상승

- 전국(0.5%)의 주택매매가격은 광역시(0.7%)가 전국 평균을 상회, 매수심리가 호전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 두 달 연속 상승

- 수도권(0.1%)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가운데, 서울(0.2%)의 주택매매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 지속
-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각각 0.2% 상승하고, 연립주택은 0.1% 상승하면서 모든 유형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서울		101.6	101.4	101.6	0.0	0.2
아파트		102.8	100.3	100.5	-2.3	0.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2.7	100.5	100.6	-2.1	0.1
	강남	102.0	102.4	102.6	0.6	0.2
전국		103.5	103.4	103.9	0.4	0.5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은 보합에서 소폭 반등

- 강북지역(0.1%)은 10개월 만에 상승전환된 가운데, 광진구(0.5%), 종로구(0.3%)등에서 상승하고 노원구(-0.1%)에서는 하락
- 광진구(0.5%)가 전세가격 상승과 부동산 가격 저점에 대한 인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매물부족으로 상승
- 종로구(0.3%)는 교통이 편리하여 유입되는 근로자 수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 강남은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강남지역(0.2%)은 서초구(0.5%), 송파구(0.4%) 등을 중심으로 상승
- 서초구(0.5%)가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마스터플랜 발표로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매물부족으로 상승하는 모습
- 송파구(0.4%)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 전환수요와 제2롯데월드 건립허가로 인한 유입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역세권 지역의 소형을 중심으로 상승

■ 1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월 28일 기준)은 1803.44만원으로 전월(1,800.32만원) 대비 소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92만원), 서초구(2,866만원), 용산구(2,549만원), 송파구(2,411만원), 양천구(1,953만원), 광진구(1,880만원), 강동구(1,86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1만원), 도봉구(1,097만원), 중랑구(1,131원), 강북구(1,13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은 물량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 방학 이사수요와 예비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 선호 등으로 인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0.9% 상승
- 서울(1.0%) 및 수도권(0.8%)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광역시(0.8%)와 기타 지방(0.8%)도 상승세 지속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은 우수학군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0.9%)은 성동구(1.8%), 광진구(1.8%)가 전월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강북구(0.0%)는 지난달에 이어 약보합세 유지
- 광진구(1.8%)가 강남지역과 인접하고 우수한 편의 시설 등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호하는 가운데, 학군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의 증가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
- 성동구(1.8%)는 강남지역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동해 오는 수요 및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여 유입되는 근로자 수요 등의 증가로 상승세 지속
- 강남지역(1.1%)은 서초구(1.8%), 강남구(1.6%), 송파구(1.4%)를 중심으로 상승
- 서초구(1.8%)는 지하철 3, 7, 9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가운데,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새 학기를 대비한 학군수요와 젊은 직장인 수요 등이 유입되면서 상승
- 강남구(1.6%)는 학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이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모습
- 송파구(1.4%)는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물량이 부족해진 가운데, 학군 수요, 신혼부부 수요 및 봄 이사철 대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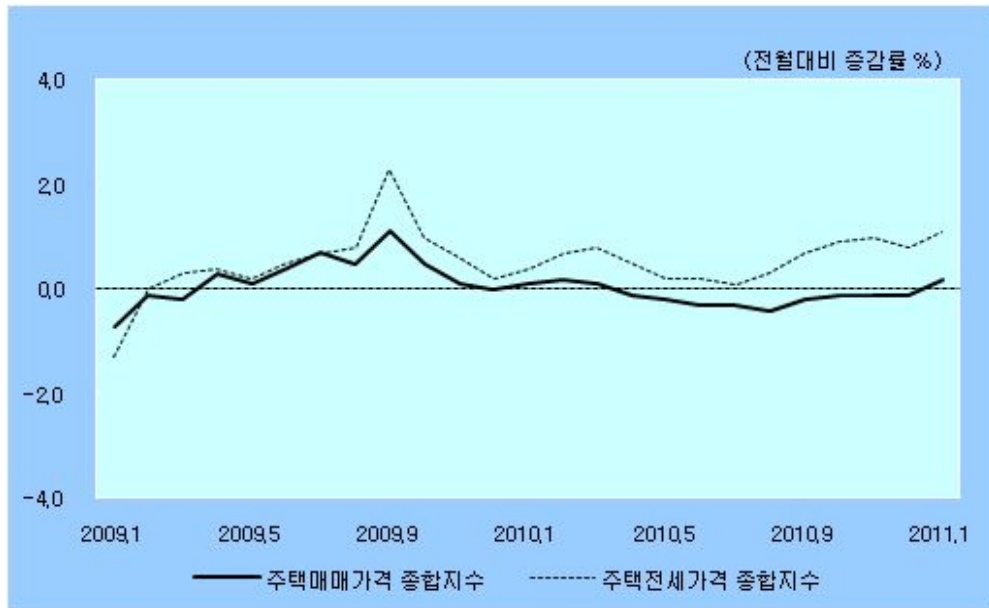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서울		103.7	112.7	113.8	10.1	1.1
아파트		106.4	116.1	117.4	11.0	1.3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8.7	109.3	110.2	1.5	0.9
	강남	104.1	116.2	117.4	13.3	1.2
전국		108.6	110.8	111.7	3.1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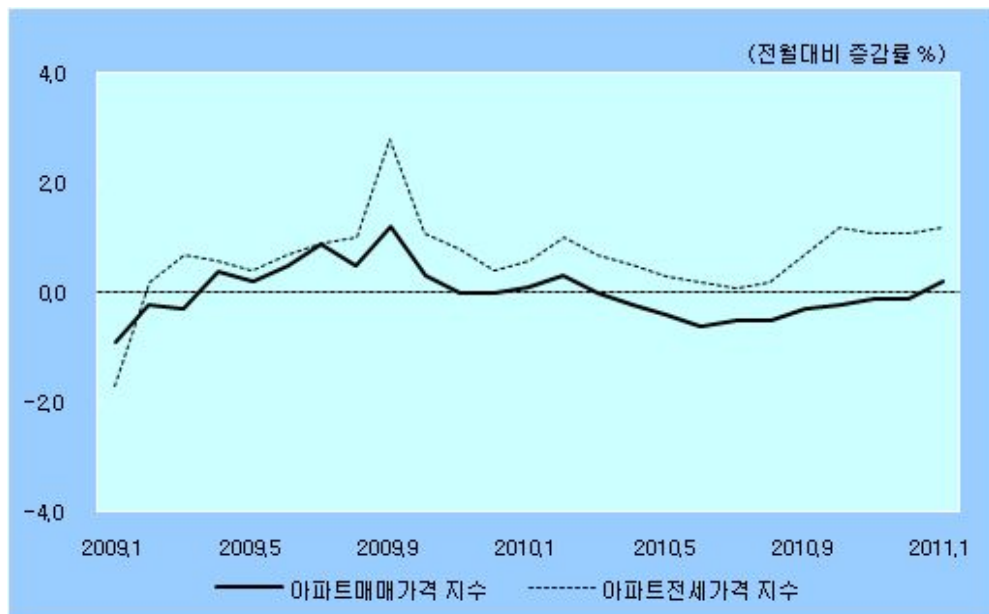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1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4.8%로 전월(44.4%)보다 0.4%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7월 42.3% → 8월 42.6% → 9월 43.0% → 10월 43.5% → 11월 44.0% → 12월 44.4%)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7.3%보다 12.5%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2.7%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7.0%, 강남 43.0%로 강남이 강북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지난 4개월간 강남·북간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지속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월 금리 큰 폭의 상승세 지속

■ 1월 중 국고채 빠른 상승세 지속

- 1월 중 국고채(3년)금리는 물가오름세 확대 우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1.13일),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 지속

■ 회사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큰 폭 상승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
-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하순경 MMF의 대규모 환매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

■ KOSPI 지수 빠르게 상승

- 1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미국 주가 상승, 국내기업 실적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사상최고치인 2,116p(1.19일)까지 상승
- 하순 이후에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중국 추가긴축 우려, 이집트 소요사태 등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
(9월말 1,683p → 10월말 1,883p → 11월말 1,905p → 12월말 2,051p → 1월말 2,070p)

■ 1월 중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 전월대비 축소

- 1월중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차익실현 등으로 전월에 비해 크게 축소
외국인 순매수(조원): 6월 0.6조원 → 7월 3조원 → 8월 -0.6조원 → 9월 4.5조원
→ 10월 4.1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3.9조원 → 1월 0.7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B-A)
		1월	9월	10월	11월	12월(A)	1월(B)	
금리	국고채(3년)	4.29	3.48	3.24	3.40	3.25	3.96	0.71
	CD(91일물)	2.88	2.66	2.66	2.73	2.80	3.05	0.25
	콜금리(1일)	2.00	2.27	2.26	2.37	2.50	2.66	0.16
	장단기 금리차 ¹⁾	1.41	0.82	0.58	0.67	0.75	0.91	0.16
주가	KOSPI	1,682.16	1,815.75	1,889.70	1,924.71	2,002.50	2,091.61	89.11
	KOSDAQ	535.44	482.36	509.94	514.88	505.36	528.60	23.24
환율 (₩/US\$)		1,138.77	1,162.90	1,122.23	1,128.08	1,147.55	1,120.07	-27.48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1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감소

- 1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줄어들면서 감소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계절적 비수기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규모가 전월에 비해 크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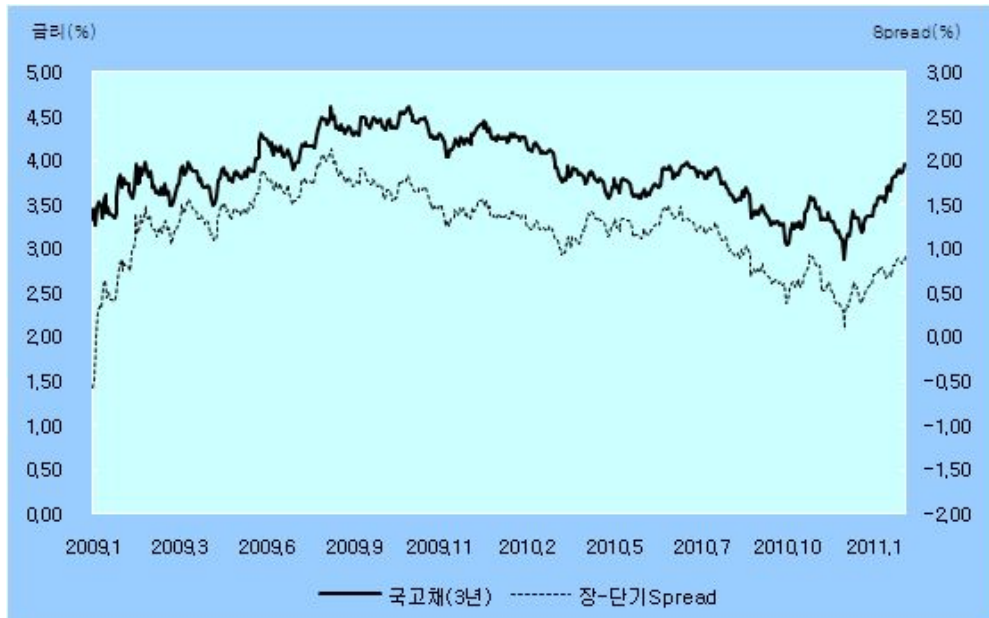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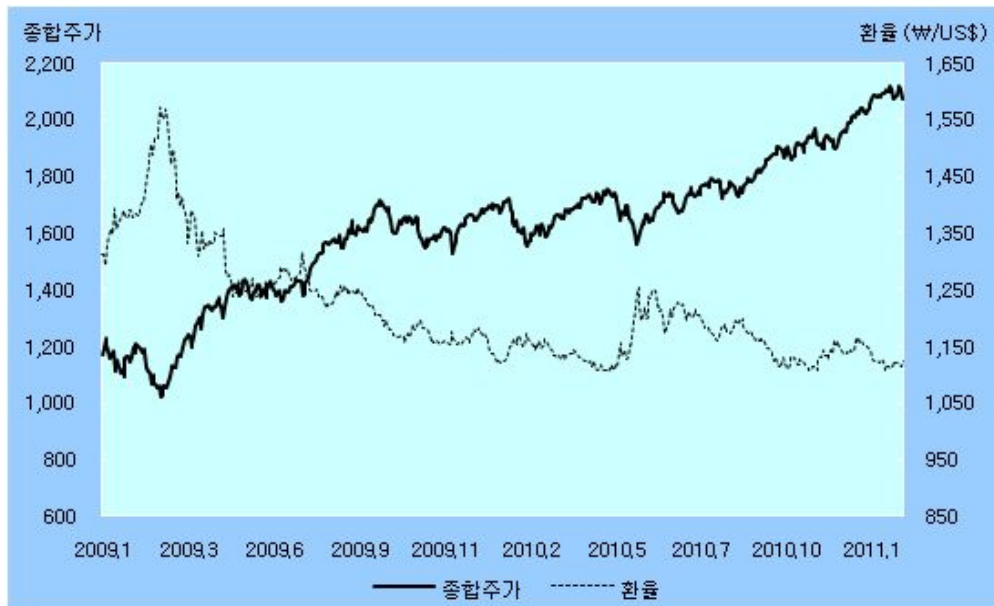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월말잔액		
	연중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1월		
가계대출 ¹⁾	21.8	1.3	2.7	4.1	2.1	-1.0	430.4	429.5	-0.9
주택담보대출 ²⁾	20.3	1.7	2.2	2.9	2.7	0.8	284.6	285.3	0.7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7	-0.4	0.5	1.2	-0.5	-1.7	144.9	143.2	-0.3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2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12월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21조 5,254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7조 4,689억원(-1.41%) 감소
- 12월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14조 9,711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 1,084억원(-0.61%) 감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예금은행	4,131,833.5	425,692.8	428,399.7	430,077.3	423,631.20	-6,446.1	-1.50
	비은행기관	93,086.7	95,222.6	97,256.4	98,917.0	97894.2	-1,022.8	-1.03
	합계	506,270.2	520,915.4	525,656.1	528,994.3	521,525.40	-7,468.9	-1.41
전국	예금은행	953,505.2	983,395.2	991,773.6	997,054.2	987,148.10	-9,906.1	-0.99
	비은행기관	307,845.1	318,271.6	322,268.1	326,025.3	327823	1,797.7	0.55
	합계	1,261,350.3	1,301,666.8	1,314,041.7	1,323,079.5	1,314,971.10	-8,108.4	-0.61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 3개월 연속 증가

■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00개로 전년동월대비 10.4%(188개)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3.2%(62개) 증가
- 1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661개로 전월비로는 3.7%(202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6.1%(326개) 증가하여 상승세 지속

■ 서울의 1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인 15.1%(206개)가 증가하였으나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각각 8.0%(12개), 1.0%(3개)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 조짐을 보인 반면 건설업은 아직 미비한 실정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812	1,699	1,847	1,938	2,000	62	3.2	188	10.4
서비스업	1,360	1,319	1,458	1,524	1,566	42	2.8	206	15.1
제조업	286	277	257	299	283	-16	-5.4	-3	-1.0
건설 및 설비업	150	99	122	103	138	35	34.0	-12	-8.0
전국	5,335	4,822	4,895	5,459	5,661	202	3.7	326	6.1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1월 신설/부도법인 배율 크게 상승하여 경기 활성화 시사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신설/부도법인 배율 크게 상승

- 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동일한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1%p 하락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6개로 전월대비 38.0%(26개) 감소,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74개로 전월대비 88.0%(74개) 감소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76.9배로 전월(37.2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경기 활성화 징조를 보였으며,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 역시 76.5배로 전월(44.0배)보다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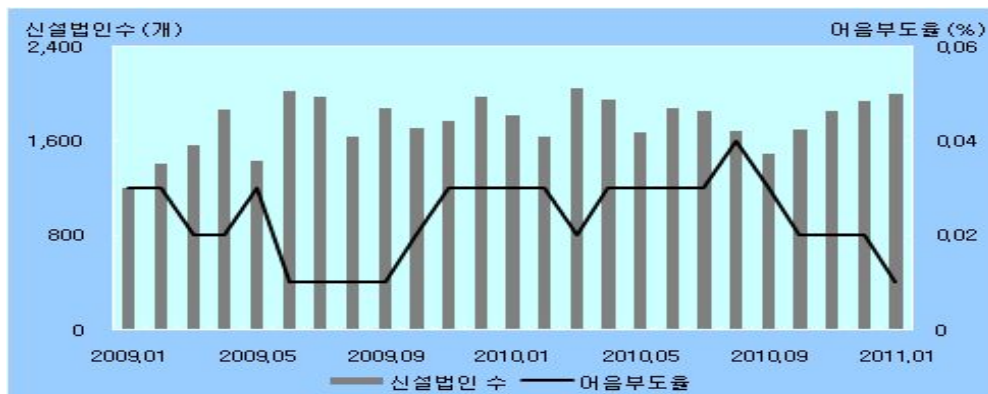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1	0.01	0.0	0
	부도업체 수	51	48	51	64	26	-38.0	-59.3
	신설/부도법인배율	51.8	44.7	47.4	37.2	76.9	39.7	-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1	0.03	0.02	0.01	-0.01	-50
	부도업체 수	141	129	153	162	74	-88.0	-54.3
	신설/부도법인배율	51.8	50.8	47.1	44.0	76.5	32.5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1월 신용보증 공급건수 · 금액 감소

■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월중 1,894건, 23,167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40.4% 감소, 보증금액 49.7% 감소하였으며,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15.9% 감소하였음. 또한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1%, 5.7%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997	4,012	2,743	3,180	1,894	-1286	-40.4	-103	-5.1
금액	24,582	57,509	51,075	46,034	23,167	-22867	-49.7	-1415	-5.7
건당평균금액	12.3	14.3	18.6	14.5	12.2	-2.3	-15.9	-0.1	-0.8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업의 지원 비중 상승

- 지난달에 비해 모든 업종의 보증건수 및 금액 감소현상을 보임.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보증건수 기준 시 28.1%로 전월(24.5%)대비 3.6%p 증가하였으며, 보증금액 기준 시 23.4%로 전월(19.9%)대비 3.5%p 증가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38	636	382	532	206	1894
비율	7.3	33.6	20.1	28.1	10.9	100.0
금액	1,989	8,079	4,693	5,421	2,987	23,169
비율	8.6	34.9	20.2	23.4	12.9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중기업 지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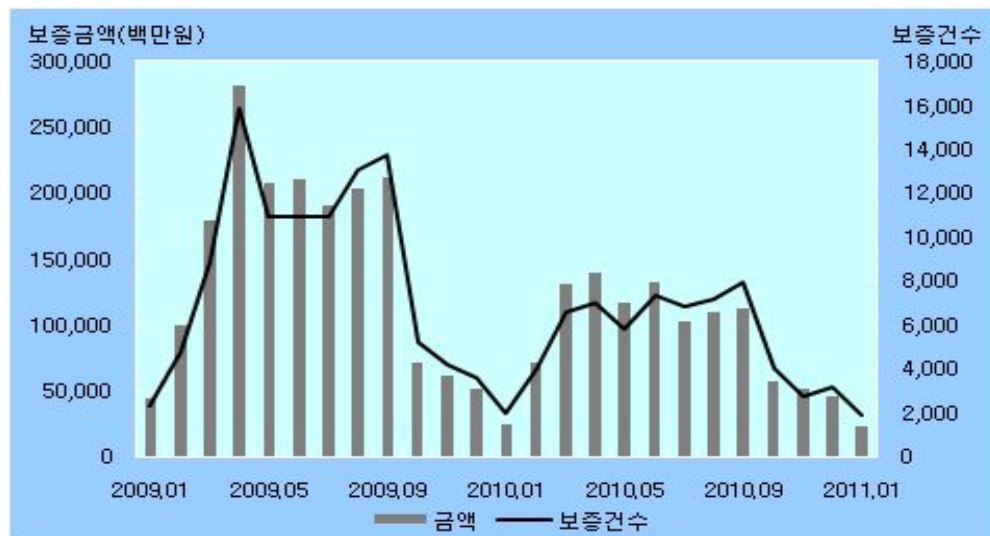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모두 전월대비 건수·금액 감소
-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1월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0%로 전월대비 2.4%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6.0%로 0.1%p 증가
- 또한, 중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3.3%, 건수기준 1.8%로 전월대비 각각 0.3%p, 0.8%p 증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0.11	2010.12	2011.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2,641	3,048	1,819	-1,229
	비율	96.3	95.9	96.0	0.1
	금액	44,180	39,841	20,612	-19,229
	비율	86.5	86.6	89.0	2.4
소기업	건수	74	83	42	-41
	비율	2.7	2.6	2.2	-0.4
	금액	6,018	5,026	1,792	-3,234
	비율	11.8	10.9	7.7	-3.2
중기업	건수	28	49	33	-16
	비율	1.0	1.5	1.8	0.3
	금액	877	1,167	766	-401
	비율	1.7	2.5	3.3	0.8
합계	건수	2,743	3,180	1,894	-1,286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1,075	46,034	23,169	-22,86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1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서울의 1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수출은 38.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1% 증가하였고, 수입은 96억 달러로 32.3% 증가
- 1월 전국의 수출은 446.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5.4% 증가하였고, 수입은 417.6억 달러로 32.4% 증가

■ 서울의 1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422,085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749,560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순

〈표〉 서울 및 전국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087	3,758	4,172	4,083	4,220	3,832	745	24.1
	수입	7,259	8,899	8,768	9,504	9,671	9,606	2,347	32.3
전국	수출	31,007	39,509	43,358	41,292	44,145	44,679	13,672	45.4
	수입	31,468	34,978	36,880	38,621	40,056	41,764	10,296	32.4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1월		2011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086,619	57.2	3,831,832	24.1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73,471	-1	464,335	24.3
2	자동차부품	201,032	-5.9	378,561	88.3
3	편직물	168,677	-18.7	215,398	27.7
4	합성수지	178,340	15.1	181,216	1.6
5	반도체	163,519	-5	180,630	10.5
6	무선통신기기	115,295	-18.3	168,693	46.3
7	고무제품	141,787	10.4	168,093	18.6
8	합성고무	104,187	4.3	147,474	41.5
9	컴퓨터	147,142	-18.6	102,336	-30.5
10	의류	72,765	-21.1	90,647	24.6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1월		2011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7,259,017	43.3	9,606,345	32.3
1	석유제품	672,119	53.6	929,567	38.3
2	반도체	653,080	11.7	734,696	12.5
3	컴퓨터	449,793	-2.6	588,776	30.9
4	의류	245,778	21.5	391,720	59.4
5	무선통신기기	190,893	-3.4	361,488	89.4
6	자동차	196,404	-19.9	310,410	58
7	농약및의약품	161,111	-15.1	246,734	53.1
8	플라스틱 제품	201,372	7.7	233,216	15.8
9	LPG	142,261	25.8	231,673	62.9
10	육류	112,143	-6.8	193,264	72.3

자료: 무역협회